사립학교법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도교육청, 과태료 부과 · 징수 규칙안 입법예고… "사학기관 공공성 · 투명성 확보"

전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절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들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은 10가지이며 과태료 금액은 최대 5백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이다.

등기 누락, 공고 사항 허위 또는 누락 공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1회 위반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회 위반하면 1백만원, 3회 이상 위반 땐 1백5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파산선고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1회 위반에도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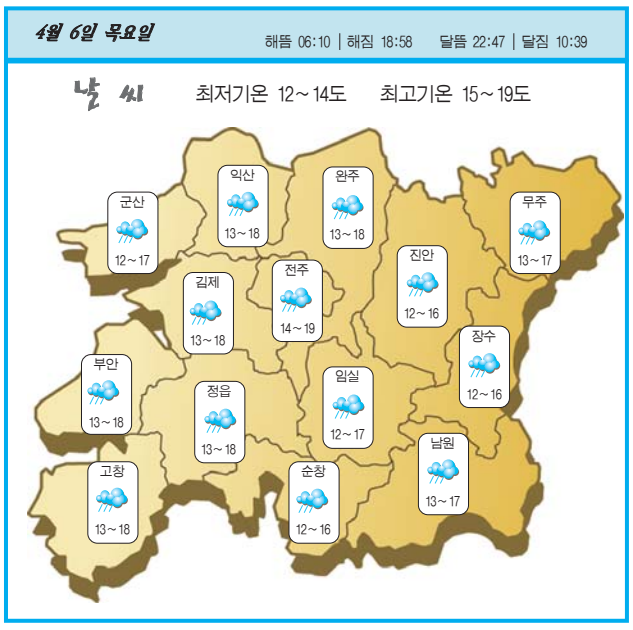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과태료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금액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정해은 기자

'한지 원료' 닥나무를 심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5일 오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산업지원센터 로비 앞 화단과 전주시청 광장 일원에서 닥나무 60여본 조림용 묘목을 심는 행사를 진행했다.



군산제일고, 1학년생 대상 '진로비전 캠프'

교육목표 맞춰 신입생들 자아탐색 기회 제공

군산제일고등학교(교장 정민숙)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비전 캠프'를 실시한다.

드림온교육컨설팅연구소(대표 최영규)가 진행한 진로비전캠프는 창의융합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군산제일고의 교육목표에 맞춰 신입생들에게 자아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아가는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고등학교 생활을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영위하도록 돕는 길라잡이로 마련됐다.

지난 2014년부터 군산제일고의 진로비전캠프를 진행한 강채리 수석코치는 서울의 유명한 진학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부전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 교장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양분이 돼 미래를 설계할 힘을 키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인 군산제일고는 진로비전스쿨과 과학, 수학 특화 동아리 운영 등으로 2014년 전국 일반고 교육역량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FIFA U-20월드컵, 외국인관광객 전주 관광 편리해진다

시, 전주 역사 내 이동 관광안내소 설치 · 통역안내원 상시 배치 · 영문판 여행책자 · 관광교통지도 제작

전주시가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를 관람하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광편의를 돕기 위해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배치하고, 영문판 전주여행 책자도 배부키로 했다.

시는 FIFA U-20 월드컵 대회 기간 내·외국인 관광객을 전주에 유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4월 중 전주의 주요관문인 전주역사에 이동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외국어통역안내원 등 관광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해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전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의 매력과 유용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영문판 전주여행 책자와 관광교통지도를 제작해 U-20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집중 배부해 여행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주여행 책자에 전주의 일반현황과 함께, 음식과 쇼핑, 숙박, 문화체험, 명소,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수록해 외국인들이 전주를 충분히 즐기고, 재미를 느끼고, 휴식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 다국어 관광안내도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해 관광지 정보전달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관광객을 직접 대면하고 안내하는 관광 해설사와 통역안내원 등에 대한 친절 및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 등을 잘 전달해 전주의 겉과 속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에게 친절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오는 5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외국어 해설투어도 매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경기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빅게임, 베트남 등 축구열기가 높은 국가들이 다수 배정돼 있어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양질의 여행정보를 제공해 U-20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광안내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선도부 폐지 관한 학생토론' 개최

8일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선도부 폐지에 관한 학생토론'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일선 학교의 선도부 운영 현황과 사례를 파악한 뒤 일부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있어 폐지 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학생인권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에서 열리며 엄기두 군산여고 교사가 사회를 맡는다.

이충민 학생인권센터 조사관이 발제를 하며 고등학생 4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 이후에는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가 진행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골든벨을 진행한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